

# ‘평생학습 새 삶을 두드리다’ 수기 공모전

부문	학위과정	성명	윤경숙
제 목	드디어 내 최종학력은 대졸		
<p><b>1. 꼭 환갑 나이에 사이버대학을 졸업하다.</b></p> <p>올해 2월 나는 드디어 한양사이버대학 상담심리학과를 졸업했다.</p> <p>요즘처럼 대학의 문호가 넓어지고 국경도 넘나들며 학위를 따는 세상이라서 대학졸업장이 예전 같지 않다지만, 내게는 그 세월이 너무나 길었고 꿈에도 그리던 졸업장인데... 싶어서 왈칵 눈물이 날 정도였다.</p> <p>내 어릴 때부터 꿈은 국어교사가 되는 것이었고, 그 꿈은 고교 졸업 때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p> <p>어릴 때부터, 初老에 접어든 현재까지 詩와 책 읽는 걸 좋아했고, 文學, 作家, 詩人 이런 말만 들어도 설레고 좋았다.</p> <p>그 꿈을 더욱 공고하게 된 계기라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자유교양대회]라는 고전 읽기 독서 경시반이 생겼다. 공부 좀 하고 책 읽기 좋아하는 학생들 몇 명을 선발해서 방과 후 도서관에서 지정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제출하면 담당선생님이 첨삭지도를 해줬는데 그리스 로마신화, 걸리버 여행기, 논어, 사씨남정기 같은 동서양의 고전을 읽고 또 읽었다.</p> <p>그 후 중학교에 가서도 고전 읽기 대회에 나갔는데, 냉전시대라 교류가 거의 없던 舊 소련 작가들의 작품은 왜 그리 이름과 地 名 모두 길고 낯설던지... 그럼에도 고전은 읽을수록 은근히 빠져드는 마력이 있었다.</p> <p>“아~ 책 속에 이렇게 다양한 세계가 있구나. 나중에 대학 가면 꼭 文學을 전공해야지” 하는 기대와 부푼 꿈으로 해질 무렵 허기지고 한적한 시골길의 무서움도 잊었다.</p> <p>특히 중학교 때 고전읽기 담당이었던 국어선생님은 그 당시는 물론 지금도 영원 한 내 롤 모델이다.</p>			

선생님은 내게 “앞으로는 여성도 많이 배우는 시대가 올 거다. 아직도 남존여비 사상이 도처에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여성이 성공하려면 몇 배 더 노력하고 폭넓은 지식을 쌓고 전문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고교 진학은 서울, 대전 등 대도시로 나가라” 고 격려해주시고 종종 퇴근길에 선생님 신혼 방으로 날 데려가서 대학시절 애기와 사진도 보여주시고 70年代엔 귀했던 직접 만든 마요네즈를 듬뿍 넣은 샐러드와 불고기도 해주셨다.

늘 새로운 책을 읽고 싶어 하던 내게 -방문은 항상 열려 있으니 언제든지 책을 빌려가되 반납할 때 책과 함께 독후감도 꼭 제출하라-는 조건부였다.

선생님 덕분에 톨스토이, 도스토예프스키, 헤밍웨이, 괴테 같은 대문호들의 책을 읽으며, 나도 나중에 꼭 선생님이 돼서 지금 국어선생님처럼 제자에게 꿈을 키워주는 멋진 教師가 되리라는 간절한 소망은 막상 대학생 대열에 들지 못하면서 산산이 무산됐다. 그 극심한 상실감과 열패감, 소외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 후로도 오랫동안.

## 2. 뒤늦게 한양사이버대에 진학한 이유.

그 후 인문계 고교 출신들이 많이 택하던 공무원이 되어 결혼하고 애들 키우며, 다른 취업주부처럼 직장and 육아로 늘 바쁘게 살면서도 항상 손에서 책과 신문은 놓지 않았다. 아니 그렇게 라도 해야 내 마음에 허기가 채워질 듯해서, 그러다가 애들이 자라 서울 등 타지로 대학에 진학하면서 소위 빈 둥지 증후군 이랄까?

아~~ 이대로 그냥 늙어 가면 어찌지? 하는 초조함과 허허로움에 바이올린과 오카리나 등 악기를 열심히 배우고 우리 동네 모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상담심리 강의를 봄, 가을에 (차시마다 15주. 수강생이 15명 전후) 들었는데, 연령대가 다르고 대부분 퇴근 후 야간에만 듣는 촉박한 수업시간 등을 감안해도 수강 생들끼리 연대감도 거의 없고 친목도 한계가 있었다.

몇 학기를 듣다 보니 이왕이면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는 학습욕구가 샘솟고 평생교육원 강의를 듣기 위해 캠퍼스를 오가면서 젊은 학부생들을 보니, 그런 푸르른 시기를 놓친 내 젊은 날이 여전히 속상하고 안타까웠다.

허나 50대 중반을 넘긴 나이에, 30세 이상 어린 학생들과 함께 오프라인 대학에 다닐 자신도 없고, 그러려면 퇴직해야 하는데 몇 년 안 남은 정년까지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직장인으로서 바람도 있었다.

그래도 더 이상 늦추면 내 삶에서 영영 대학공부는 못할 거라는 절박함에 도전했는데, 2017년 내게도 드디어 대학의 문이 열렸다.

참으로 멀고 험한 길(인생 길)을 돌고 돌아서 목적지에 다다른 느낌이었다.

한양사이버대를 선택한 이유는 지명도가 높고 인터넷에 학교 설명이 잘 돼 있었다. 여담이지만, 잠실에 이모가 오래 살아서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오가며 한양대 캠퍼스를 많이 봐서 낯익고 친근했고, 늘 바쁜 내 여건상 지방에서 접근성이 좋다는 이유도 있었다. 그러나 막상 공부를 시작해보니 이 나이에 직장생활과 공부를 병행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아마도 연령대와 職業群이 다양하고, 사회적 경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나와 비슷한 여건에서 지금 이 시간도 온라인 강의를 듣는 후배와 졸업을 미룬 동기, 선배들도 많을 것이다.

힘들어도 새로운 공부는 좋았다. 나이가 주는 여유로움, 오랜 직장생활과 연륜으로 축적된 경험이 주는 빠른 이해력이 가장 큰 장점이다.

### 3. 사이버대학에 다니며 특히 기억에 남는 逸話 들

사이버대학은 요즘처럼 인터넷이 발달하지 못했다면... 상상도 못할 공부과정이다.

주지하다시피 직장과 학업을 병행한다는 장점이 크지만 사실 그게 어려움도 된다.

교수님과 학생, 또 함께 공부하는 학우들 간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점, 그런 취약점을 보완하려고 학교에서도 많이 노력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를 들면 입학 후, 중간, 기말고사 직후 등 학교에서 오프라인 수업을 실시하고 졸업 예정자의 논문콘서트, 봄, 가을로 학교에서 개최하는 체육대회 등...

나 역시 그런 다양한 행사, 특히 논문 콘서트에 참석하고 싶었는데, 거리상 멀고 또 주말에 근무할 때도 있어 못 가서 많이 아쉬웠다. 그래도 오프라인 수업은 몇 번 갔었는데,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던 교수님을 직접 만나고, 다른 학우들의 다양한 질문과 피드백을 보는 게 신선한 경험이었다.

2년 전 가을에 경기도의 한적한 콘도에서 교수님과 수 십 명의 학우들이 참가한 MT도 갔었는데... 경치 좋고 고즈넉함까지 갖든 풍광 때문인가?

대부분 초면임에도 곧 친해지게 하는 학생회 임원진들의 노력과 적극적인 친화력 덕분에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다양한 주제 발표, 공부를 하면서 달라진 점과 보람 등등...

곧 이어 펼쳐진 바비큐 파티장에서 푸짐한 고기 익는 냄새와 연기를 덮어버릴 풍성한 대화로 가을밤이 깊어 갔다.

그 후 강당처럼 넓은 콘도 거실에서 교수님 몇 분을 모시고 즉석 강의와 질문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그날 여러모로 재밌고 유익했고 내년에 또 만나자고 기약했는데, 하필 코로나19 여파로 잠정 중단된 게 해를 넘기고 나는 올해 2월 졸업했으니, 이제 그런 기회는 다시없을 듯하여 아쉽다.

그 중에 멘토 제도가 유익하고 실효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1학년 때 1명의 멘토와 8명의 멘티로 학교에서 연결해줬는데, 우리 조는 나와 다른 1명만 지방에 살고 다들 서울에 거주하고 연령대도 비슷해서 첫 만남부터 느낌이 좋았다.

특히 1학년 선배인 멘토가 학교와 공부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많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 우리는 순식간에 마치 오랜 친구들처럼 친해졌다.

사실 말이 후배지 대부분 50대 초중반의 사회인들끼리 쉽게 친해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멘토의 힘이였다.

우리는 밴드와 단톡을 통해 수시로 소통하며 공부와 시험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다들 연령대가 있어 멤버 자녀 결혼식과 부모님喪 에도 함께 참석하고 지난 2018년 가을에 강릉여행도 다녀왔다.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한 세상에도, 강원도는 산세가 험해서 그런가?

여전히 멀다는 느낌이 드는데 새로 개통한 영동선을 KTX타고 가니 기분도 새롭고, 한결 가까워진 느낌이었다.

산과 바다, 그윽한 커피 향까지 어우러진 커피거리를 또 다시 가고 싶다.

우리는 졸업은 했어도, 같은 시기에 공부한 인연과 이런저런 추억이 착실하게 쌓인 동지로서, 앞으로 나이 들면서 겪을 다양한 인생사와 애환을 공유하기로 했다. 사실 우리나라 나이 정도면 그동안 학연과, 사회 생활하면서 생성된 다수의 모임과 인맥이 있을 텐 데도 멘토 모임은 색다르고 각별하다.

덧붙여 2년 전 내가 팀장 할 때 20대 초반의 신입 직원이 보기 드물게(날이 갈수록 공무원 인기가 높아지고 경쟁률이 치열해지면서 신입직원의 95% 이상이 대졸자가 된 지 오래임) 고졸인 걸 알고 내가 공부한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사이버대 진학을 권유, 그 직원도 현재 한양사이버대학교 내 후배가 된 것도 의미 있고 반갑다.

#### 4. 내 평생의 직업 『교도관』으로서 상담심리 공부는 相生이었다.

##### 1) 수용자 개인 상담하기

2017년 승진하고 근무지와 주요 업무가 바뀌면서 수용자들((在所者 호칭이 '수용자'로 바뀐 지 오래 됨. 이하 수용자로 표기) 상담을 많이 하게 됐다. 상담심리 공부를 하다 보니 과목과 교수님은 달라도 공통으로 역설하시는 문구. 용어가 몇 가지 있는 데, 가장 빈번한 게 “경청(傾聽), 치유의 힘, 피드백, 라포 형성” 같은 말과 그 중에서 『내담자가 상담실로 찾아오는 복잡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강조하셨다.

나 역시 교도관으로서 가장 많이 보는 내담자인 수용자를 상담하면서 위에 열거한 용어와 의미. 교수님의 강의를 상기하면서 상담에 임하려고 노력했다. 담 안에는 수많은 교도관과 그 보다 훨씬 더 많은 수용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와 1:1로 마주앉아 상담을 하는 일은 두 사람 모두에게 특별하고 중요한 일이다.

수용자들의 죄명과 연령. 형기가 다 다르듯, 그들이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문제도 다 달랐다. 흔히 “사람 많이 대하는 직업이 가장 힘들다” 고 하는데... 그것도 담 안의 수용자라는, 어쩌면 특수한 신분이자 사회인보다는 행동반경에 제약이 많기에 상담자로서 더욱 어렵고 조심스럽다.

상담하는 횟수가 증가하면서 강의 때 교수님들이 예로 든 사례자들과 비슷한 성향의 수용자 (ex: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등... **그렇다고 모든 수용자가 예시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소수지만, 심층상담이 필요 할 때가 있음**) 들도 있고 실제로 내가 상담을 한 적도 있다.

그렇게 근무지에서 상담을 많이 하면서 교수님들 강의 노트를 참고하거나 다른 전문 서적도 열심히 읽었다.

00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심리상담 전문가 교육도 갔었는데, 국내외 대학에서 취득한 학위와 자격증이 많은 외부강사와. 역시 심리관련 공부 많이 한 교육생 (대부분 교도소 내 상담심리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들의 면면과 슈퍼비전 시연을 보면서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탄식과 더 열심히 해보리라는 각오가 交織처럼 교차했다.

##### 2) 수용자 대상으로 所 內 각종 교육에서 내부강사를 해보니... 2019년

3월 상담 심리 센터 팀의 교육 담당 직원의 전화를 받았다.

다음 달에 시작하는 심리교육 때 내부강사로 특강을 해달라는.

참고로 심리교육은 재판 때 이수명령이 부과되거나, 또 관계법령에 따라 수용자들을 선발, 일정기간 실시하는데 대학에서 상담심리나 심리학 등을 전공하고 전문 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를 특채, 그 직원들이 수용자 개별상담을 많이 하고 집합 심리교육도 주관한다.

그 교육과정에 2회 특강을 해달라는 직원의 부탁을 받고 만감이 교차했다. 아니 많은 직원 중에서 선택(인정)받았다는 게 고맙고 매우 기뻐다.

나는 1980년대 초반에 정북 교도관으로 임용돼서 수용자 입 출소 업무, 각종 종교 집회, 출정과 접견 등 비교적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업무 외에, 담 밖 사람들이 잘 모르는 수용자 관련 보안업무를 주로 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수용자의 소내 생활과 관련된 상담이나 간단한 교육은 종종 했지만, 그래도 소기의 목표가 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수 십 명의 교육생(수용자)에게 실시하는 집중 심리 교육 때 강사로서 “올바른 직업관, 알코올이 미치는 폐해” 등 특정 주제를 선정, 특강을 하는 건 그 의미가 다르다.

어쩌면 남들에게는 새털처럼 많은 날 중에 고작 2시간짜리 교육(특강)을 수회한 게 뭐 그리 대수라고? 할지도 모르지만 누군가에게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전하고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흥미 있고 좋았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나 멀고 길었다. 그래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그렇게 특별하게 다가온 기회라서 뭔가 색다르고 기억에 남는 시간이 되게 해주고 싶었다.

맨 먼저 오랫동안 간직해 온 메모 노트와 신문 스크랩 뭉치를 펼쳤다.

꼭 무슨 거창한 목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오래 전인 20代 때부터 책과 신문을 꾸준히 읽었는데 신문은 일단 접근성이 좋고 주요 필진(筆陣)인 기자와 교수, 시인과 작가 등 좋은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쓴 기사와 글, 진한 여운이 남는 詩도 있으니까, 오랫동안, 열심히 읽다 보면 언젠가 내게도 지식이 쌓이겠지, 하는 마음으로, 마치 道 닦듯 읽었다.

그 때 항상 노트와 가위를 들고 아름다운 詩 와 멋진 문구들은 노트에 메모하고 근사한 사진, 관심분야인 작가나 시인, 대학교수들이 기고한 글과 인터뷰 기사, 대학가와 文壇 소식은 오려서 스크랩해 두었다.

특히 십 수 년 전부터 각 신문마다 매주 주말 판에 각종 書評기사가 알차서 아예 섹션째 보관하고 있다.

현재는 출근하기 바빠서 그 서평에 나온 책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퇴직하면 스크랩 해둔 것을 정리하면서 꼭 읽어야 지 하는 마음으로, 마치 마음에 종신보험들 듯 차곡차곡

모아 두다 보니까 꽤 많은 양이 됐다.

**사실 내가 예나 지금이나 신문과 시사 잡지, 문예지 등을 열심히 읽는 이유는 나 자신도 지칠 정도로 치유가 안되는/여전히 가슴 한 칸이 시리고 허허롭고 쓰라린 대학에 대한 미련 때문이다.**

내가 젊을 때인 80年代는 요즘처럼 인터넷과 휴대전화에 다양한 정보와 지식이 차고 넘치는 세상이 아니라서 제도권 학교를 벗어나면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 그냥 다 싸잡아서 고졸 이하가 되는 거고 하필 그 당시 마스크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던 대학가요제, 대학 가곡제, 대학 개그맨 선발대회 등 그들 만의 세상을 보면서 나는 많이 외롭고 심심하고 쓸쓸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조용히 선택한 게 책과 신문이었다.

각종 문화생활을 접하고 즐기는데 한계가 있는 지방 소도시에 살면서 평일은 물론, 주말과 명절에도 교대로 주야간 근무하는 내 여건상 運身의 폭이 제약이 있어서 그 대안으로 틈틈이 짬을 내어 신문을 보고 비번 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열심히 읽었다.

그렇게 내 머리와 모아둔 스크랩 뭉치에서 좋은 文句와 아름다운 詩, 비록 유명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한 분야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이 들려주는, 일테면 【속 빈 사람은 있어도 속 빈 만두는 없다】 같은 피식 웃음이 나오지만, 되새길수록 압축된 진솔한 삶의 이야기까지 잘 엮어서 A4용지 몇 장에 담아 수용자들에게 나눠줬다.

특강하는 날, 교육실에서 맨 먼저 “나는 직원이자 교육생들보다 인생 선배로서, 50년 훨씬 넘게 살면서 크고 작은 일 많이 겪었고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은 세상 인심에 상처도 받았다.

그렇게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말문을 트고 내 나름 준비한 교재(?)인 A4용지 내용을 적절히 인용하면서 실시간으로 수용자들의 반응을 파악하고, 나는 내부강사이자 오랫동안 근무해 온 직원으로서 평소 수용자들이 궁금했던 질문도 함께 받았는데, 처음엔 기대 반 호기심 반이던 수용자들도 내가 먼저 개방하고 다가가자 그동안 궁금했던 질문들을 쏟아냈다.

사실 20~60代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수용자들에게, 어쩌면 특정 직업훈련이나 외국어 등 지식을 가르치는 수업이라면 포인트를 잡기가 쉬울 수도 있다.

그래도 수 십년간 봐온 사람들이고, 내가 해온 일인데 하는 자신감으로 열변을 토하다 보니 2시간이 훌쩍 넘어갔고 수용자들은 열심히 박수로 화답해줘서 나 역시 기쁘고

보람 있었다.

교육 후 담당 직원이 설문서를 받았는데, 수용자들이 “내 강의가 색다르고 좋았다. 있는 그대로 봐줘서 고맙다” 등 긍정적인 평가가 많아서...

**나도 딱히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연대감과 보람. 자신감도 생겼다.**

비록 내가 教師도 아니고, 이미 성인이 된 수용자들에게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수용자들과 가장 오랫동안 함께 있는 사회인이자 관리, 보호자로서 그들이 잠시라도 受刑생활의 시름을 잊고 예전에 그 국어선생님 만큼은 아니더라도 “아~ 그 고마운 직원” 정도로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그 후로도 이런저런 교육 때 내부강사로 특강을 종종했는데, 그 준비과정에서 나 자신도 많이 배우고 한결 UP된 듯한 보람도 컸지만//하면 할수록 어렵고 오래 다녔음 에도 여전히 수용자들의 또 다른 면들을 발견하면서 “아...역시 사람을 알아가고 이해한다는 건 여전히 어려운 일이구나” 고 느꼈다. 이론과 실제도 많이 다르고.

학창시절 선생님들이 왜《공부는 평생 하는 것》이라고 역설하셨는지 새삼 실감나고, 비록 어릴 때 일이지만 “나는 오늘 공부를 다 하고 일기를 쓰고 일찍 잤다” 고 썼던 게 뒤늦게 피식 웃음이 나오고 멋쩍었다.

## 5- 마무리 (미래의 계획을 짜보자면)

나는 이제 곧 정년 퇴직한다.

흔히 “한 우물만 파라”,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고 하는데 강산이 돌고 돌아서 다시 원 위치에 다다를 정도의 세월을 여성 직업으로는 드문 교도관으로 근무했다.

우리 업무 특성상 수용자들을 늘 봐야(업무 용어로 戒護)하기에 평일은 물론 휴일과 명절에도 주야간 근무를 교대로 했는데 내가 선택한 직업이니까, 당연히 감수하고 다녔다. 또 어떤 직업이든 다 나름 애환과 보람이 교차하니까 나만 더욱 힘들었다고는 생각 안 한다.

다만, 휴대폰도 자가용도 없던 시절이라 기동성이 떨어지고 지금처럼 탁아시설도 드문 데다 내 근무 여건상 위탁모, 놀이방 다 맡기기 어렵고, 남편이 퇴근 후 돌보는 것도 한계가 있어 어릴 때부터 제 손으로 밥 챙겨 먹고 방학 때마다 여기저기 친척집을 전전하며 자란 애들에게는 많이 미안하다.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심리학의 大家인 프로이트는 물론 융(Carl Gustav Jung)과 칼 로저스(Carl Ransom Rogers) 등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릴 때 1차 양육자(주로 어머니)로부터 제대로 돌봄을 못 받은 사람들이 평생 동안 겪는 트라우마와 심리적인 불안정, 격리불안으로 나타나는 증세 등을 배울 때는 이미 30대에 접어든 자식이라도 새삼스럽게 많이 미안하고 마음이 아팠다. 그래도 지금 생각하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젊을 때가 좋았다. 그 때는 몸도 마음도 젊고 힘이 있고 무슨 일을 하던지 자신감이 넘쳤으니까.

요즘 내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퇴직 후 뭐할 거냐?" 이다.

그동안 수 십년간 한직장에서 근무했으니, 퇴직 후엔 당분간 쉬고 싶다.

집안 정리도 하고.

퇴직한 선배님들 말로는, 그렇게 쉬는 것도 잘해야 3개월이고, 그 시기가 지나면 나태해지고 무기력감에 빠져서 뭐라도 해야 활기가 돌고 자존감도 회복된다고 많이 들었다.

나 역시 비슷할 듯하다.

아무래도 시간이 많을 테니까 체계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다.

내 업무상 어쩌면 남들과 다른 다양한 사연과 삶의 편린들을 지닌 사람들을 많이 보고 상담도 하면서, 인생의 쓴맛 단맛도 듣다 보니 그 과정에서 라포 형성이 되고 보람도 있지만, 가끔은 돌발변수도 생기고.....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 모두에게 정서적,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지만, 나는 그 모든 과정이 내 업무이자, 내담자는 물론 상담자도 크든 작든 생각의 폭을 높이거나 넓힌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퇴직 후 바람이라면, 이제는 돈 버는 일이 아니라도 좋으니 범죄에 연루된 청소년 상담이나 지방 소도시에 많이 거주하는 다문화 가정 돌봄 센터 등//그 외 상담이나 봉사활동을 할 곳을 찾아보면 - 여럿이 있어도 어쩐지 혼자 같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 - 도 있을 거라 짐작한다.

그런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는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더 큰 포부라면(기회가 된다면) 더 깊게 공부하고 자료 수집도 많이 해서 수용자들 교육 때 외부강사를 하는 게 꿈이다. 이제는 직원이 아닌 새로운 각도에서 보면 어떤 느낌이고 피드백이 있을까? 궁금하다.

2년 전 인기리에 방송된 어느 드라마에 나온 대사가 격하게 실감나서 오래 기억에 남는다 【 때로는 잘못 탄 기차가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 고.

어쩌면 나도 기차를 잘못 탔다기 보다는 행선지가 다른 기차를 탔고, 그 과정에서 터널도 지나고 간이역은 통과도 하고 급정거를 해서 놀라기도 했지만?

세월이 많이 흐르고 보니 그 도착지도 경치가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다고.

그래서 고마웠고 행복한 여행길이었다.